

'기성회비 파문' 전남대 초비상

법원 반환 판결에 지역 국공립대도 촉각

판결대로라면 학생들에 40억 돌려줘야할 판 등록금의 80%...전액 반환 소송엔 감당 못해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돼온 국·공립대의 기성회비(期成會費)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를 최근 10년 내(소멸시효) 졸업한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대, 목포대 등 주요 국·공립대학은 기성회비 반환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등록금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면 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전남대 424명을 비롯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40개 국립대가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

▲기성회비= 학교 시설 확충 등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존치돼왔다. 2009년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전체 등록금의 86.9%를 기성회비로 충당했다.

실이 드러난 데 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65억원, 경북대 2001억원, 전남대 1644억원, 강원대 1469억원 등이었다.

광주·전남 국공립 대학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재정이 심각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의 일부인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지만, 전액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반환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산술적으로 전남대 연평균 졸업생이 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한해 졸업생 반환금만 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반환소송 청구 시효 10년내 재학생을 4만명으로 잡으면 4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이 제기될 경우다. 전남대는 지난해만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432만2100원 가운데 349만7000원(80.9%)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여 한해에 무려 140여억원을 학생에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광주교대 등 주요 국·공립 대학도 마찬가지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정부의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단의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복지 등 현안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8490) 김종두

이상득 박희태 초시중... 유유

MB정권, 도덕적 몰락

그나저나 MBC는 또 왜 거러?

MB정권 들어 가는 것은 잘 안될까? 만된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폭행"

학부모, 남부경찰에 고소장

광주 남부경찰은 29일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박모(여·22)씨가 A(4)군을 때렸다고 A군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의 어머니는 고소장에 "어린이집 교사 박씨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당겼으며 한쪽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다닌 뒤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다"고 밝혔다.

박씨의 폭행은 집에 귀가한 아들의 코에 상처가 난 것을 수상한 여긴 A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A군이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두고 싸우자 교육지원에서 코를 잡았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부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위원회 회를 개최해 해당 어린이집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헌팅' 10대 女 술 취하자 성폭행

○'헌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음흉한 30대 남성 간혹사가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검인된 김모(30)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9)양을 1차례 성폭행했다는 것.

○광주지역 모 병원에서 간혹사로 일하는 김씨는 3일 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A양을 불러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변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00도 돌파... 펄펄 끓는 광주 사랑의 온도

29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4년만에 100도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1일 시작된 '희망 2012 나눔캠페인'은 이날 목표액인 22억원을 넘어선 22억3600만원이 모이면서 101.6도를 기록중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5%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이날 현재 95.7도로 목표액인 58억원에 3억9000만원 부족한 상황이다.

/최희배기자 choi@kwangju.co.kr

살인으로 끝난 부부싸움

아내 살해 50대 광주 서부경찰에 자수

광주서부경찰은 29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김모(5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박모(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식당

을 개업한 아내와 금전 문제로 심하게 다투며 이날도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찔렀다"고 자수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0대 5·18국가유공자 허위 보험금 수령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수십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5·18국가유공자 김모(5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하고 아내(48)와 두딸(25·23)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9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 2009년부터 관철연, 위계양, 생리통, 고혈압 등으로 867일간 입원해 보험금 2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폭이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집 살 돈 부족하니 2억원 보내라" "그랜저 TG 좋더라 한 대 사달라"

보해저축銀 뇌물 갈취 법원판결문 통해 공개

"집을 사야하는데 2억원이 부족합니다. 행정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1국 저축은행 5팀의 부은행장인 이모씨)

"그랜저 TG 3.3 승용차가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님이 한 대 사주시면 정말 은혜 잊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인도받을 때 저에게 대금을 직접 주십시오"(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정모씨)

"집사람이 삼성화재에서 보험 모집을 하고 있는데, 보험 좀 들어주세요"(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저축은행 5팀 선임 조사역 김모씨)

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낱알이 공개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검사장장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3억3675만5528원, 정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100만원 및 추징금 4100만원을, 수석검사역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보해저축은행 은행장이던 오문철(59)씨에게 16차례에 걸쳐 1억2210만원을, 지난해 2009년 초에는 '주택 구입에 보탬이'며 현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전 보해저축은행 은행장 박중환씨에게 부탁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신의 처의 명의로 매달 보험료 280만원의 직원단체상해보험(5년 간 1억6800만원)을 가입하게 하는 등 무려 8개 상호저축은행과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주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군기 빠졌다" 각목 폭행

고흥경찰, 후배들 때린 고교생 8명 검거

고흥경찰은 29일 학교 후배들을 각목으로 폭행한 김모(17)군 등 고등학교 8명을 집단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2시께 고흥군 도양읍 전담대 휴게소에서 중학교 동문 후배 신모(16)군 등 12명을 1시간여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군 등이 자신들과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

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기를 잡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신군 등은 이에 급이 가고 전지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 8명 중 김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머지 5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경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

담신으로 피해신고 받아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학생과 직접 연락,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초중고교와 협조해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 담신으로 피해신고를 받는 실태조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최근 하달했다. 학교 측이 경찰과 협의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라

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해당 경찰서 학교 폭력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일부 지역 경찰서가 이같은 방식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태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고 이를 모범사례로 전국 지방청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신고를 받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에 아예 쓰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필뉴스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2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